

노인의 실버산업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 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realities of silver industry
- focusing on the consumption of leisure services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 수 문 숙 재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곽 민 진

Dept. of Consumer Studies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rof : Sook Jae, Moon

Dept. of Consumer Studies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Doctoral student : Min Jin, Kawk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and analyzing consumption of leisure services in silver industry and factors that had effects on them. This focused on the consumption of leisure services and its influence on the variables related to change of elderly's attitude, because socio-economic environment structure is improved and average life span is prolonged.

The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1. Totally, the percentage of leisure services consumption not so high and kinds of leisure were not various. Also, the reason why they use leisure was just for self-development and their indifference to leisure made them not to use services.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family-environmental conditions relating the consumption of leisure services in the silver industry.
3. Among variables which influence on the consumption of leisure of the elderly, job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lso average monthly income, the changable inclination in food, clothing and shelter, social support of the family, status of residing, status of health and source of income were influential variables.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 7월, UN에서 지정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1).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오는 2022년에는 노령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가 되고 이보다 불과 10년 뒤인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1). 또한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의학기술의 발달과 영양, 위생 상태의 개선으로 인한 인간의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2001년 11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90년대 7.6%에서 2010년 13.7%로 증가될 전망이고, 평균수명 또한 1990년 71.3세에서 2020년 77세로 연장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이 늘어나고 자녀가 독립한 이후 대략 20년 이상의 시간이 노년기에 편입됨으로써 실버 라이프는 무려 인생의 1/3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실버층이 커다란 규모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요즘에는 실버마켓이나 실버층의 라이프 스타일 및 가치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미 고령화 사회 또는 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실버계층의 성장이 사회경제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실버층은 기존의 실버층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20세기 소외된 계층으로 여겨져 왔던 노인들이 구매력을 가진 소비집단으로 중요시되면서 생애설계를 60세에서 80세에 적합하도록 하는 생애설계의 재구축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신한중합연구소, 2000). 한편 노인들은 쾌적한 노년생활을 위한 생활설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녀나 사회의 도움 없이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우피(Wopies; Well Older People)생활을 지향하고,

건강·의료·복지·레저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에 적극적이며, 은퇴로 초래되는 정체성의 위기를 사교생활이나 새로운 생활패턴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띄는 등 쾌로생활을 담보 받기 위한 생활설계의 구축에 남다른 노력과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신한중합연구소, 2000).

한편 전반적인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고령층의 경제력 향상으로 2020년에 이들의 자산규모는 기존의 실버층보다 훨씬 더 클 것이며, 국민연금과 노후보장성 저축으로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될 것이다(송석린, 1998). 따라서 그들의 구매력 보유비율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실버세대는 새로운 소비자집단으로 부상하리라 생각된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3).

이렇듯 기존의 실버층과 다르게 경제력이 있고, 다양한 욕구를 추구하려는 실버층의 증가로 인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나 민간부문 차원에서 관심 집중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부상한 것이 바로 실버산업이다. 실버산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마케팅적 측면에서 노인소비자를 보는 연구(박길순, 1993; 이기현, 1994; 이영수, 1994; 박민아, 1997), 실버산업의 현주소와 전망을 다룬 연구(이인영, 1997; 송석린, 1998; 이성희, 1998)가 대부분이고, 노인의 복지나 생활의 질 측면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인간생활에서 일의 역할보다 생활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의 대두로 노인의 여가의 의미 그리고 여가활동의 욕구나 동기, 계획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주거관련분야의 실버시장 규모는 약 1조원, 의료관련분야는 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여가관련분야의 실버시장의 규모는 2010년에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8,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런 사실은 요즘의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노인들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노인들의 여가활동분야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증가를 입증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노인들의 신체적·경제적·정

서적 준비와 함께 여가활동에 대한 계획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김태현, 1996).

이에 본 연구는 실버산업의 6가지 분야(주거관련분야, 의료관련분야, 식품관련분야, 여가관련분야, 금융관련분야, 생활관련분야)중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관련분야의 이용 여부 및 실태를 파악하여 노인들의 여가관련 분야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가관련분야를 이용하는 데의 문제점을 분석·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며, 노인들이 원하는 여가관련서비스에 다가가도록 민간기업이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보제공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는 노인들의 생활을 행복하고 여유롭게 하며, 복지적 측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실버산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실버산업의 개념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이란 용어는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데, 그것은 노인산업을 특별한 산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반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실버산업의 발달도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버산업이란 용어는 학문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기관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무역진흥공사(1991)는 실버산업을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이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김건민(1994)의 연구에서는 고령자들과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을 보다 풍요롭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유지·향상케 하는 노인용품이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삼성경제연구소·삼우설계

(1992)의 정의에서는 고령층의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황의록(1992)의 연구에서는 민간기업이 경제력 있는 노인인구계층 및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예비 노인인구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한국토지개발공사(1995)는 노인과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을 소비계층으로 하여 생활의 안정과 편의, 건강유지 등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공급하는 제반산업, 최성재(1995)의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또는 노령기에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하고 공급하는 활동, 현외성 외 4명(1998)은 실버산업을 고령층의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행하는 산업이라 정의하였다.

위의 정의들을 고려하여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이란 노인복지사업 또는 실버서비스 산업으로 명명할 수 있고, 대상자가 60세 이상의 노인인 협의의 정의와 노후대책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모두를 소비계층을 포함하는 광의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실버산업의 개념정의는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노후생활 준비를 하는 중·장년층 모두를 포함하는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편의의 그리고 건강유지 등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의 원리에 의해 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실버산업의 분류

실버산업의 분야는 다양하다. 그동안 국내에서 분류된 실버산업의 분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실버산업을 주거관련분야, 의료관련분야, 건강·식품관련분야, 문화·레저분야, 금융관련분야, 생활관련분야의 6개

〈표 1〉 실버산업 유형-1

구분	내용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구분	내용 (삼성경제연구소)	구분	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용	구분	구분 (한국토지개발공사)
주거관련 서비스	장기체제형주택-실버타운, 전용맨션, 리폼(Reform)	주거관련 분야	주거시설-유료양로원, 3세대주택	주거시설 분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세대동거형주택, 아파트형 (노인전용, 호텔식 주거시설), 노인촌, 요양시설	주거관련 분야	구분	(한국토지개발공사) 유료양로원, 유료요양원, 노인전용주택, 노인맨션, 노인아파트 복합실버타운
	CARE관련주택-유료노인홈, 자리보전전용홈		재가서비스-급식서비스, 복지기기					
	단기체제형-주간보호시설							
CARE 서비스	주택CARE-종합서비스, 가정방문보호원	생활관련 분야	의료부분-일상복, 정장복, 환자복	의료 복지 서비스 분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건강식품 분야	구분	건강기기(전자혈압계, 전기찜질팩) 건강식품 (인삼, 영지버섯) 건강약품 (알로에, 스키프렌)
	식사서비스- 노인용메뉴제공, 식품부식배달		식품부분-건강식품, 기호식품					
	개호상품유통-개호용품임대		생활용품부분-가전제품, 일상용품					
건강관련 서비스	건강관리-노인검진센터, 건강의원, 노인전문병원	의료관련 분야	병원부분-노인전문병원	의료요양 시설분야	일반요양시설, 특별요양시설 (치매등급중 노인대상)	의료관련 의약품 분야	구분	노인전문병원, 노인병센터, 노인건강진료센터
	여행-실버여행대리점, 여행회		제약부분-노인성질환약품					
	스포츠-테니스장, 교령차용 수영장		의료정보부분-병원관리, 의학정보					
스포츠, 레저 서비스	건강증진시설-휘트니스클럽	여가활동 분야	인력과건부분-의료요원일선	의료 및 복지용구 분야	노인전문병원 각종노인복지용구생산	문화레저 분야	구분	노인대학, 취업, 효도관광, 레저스포츠, 오락, 취미생활
	휴양시설- 요양및휴게소, 건강센터		사회활동부분-취업, 교육					
	취미-노래, 수예, 연극회		여가활동부분- 스포츠, 취미생활, 관광, 오락					
교육관련 서비스	오락-야외공연장, 관광농원	여가활동 분야	연금부분-공적연금, 사적연금	금융보험 분야	노후대비가중연금 및보험상품	금융관련 분야	구분	노후연금신탁, 노후연금보험, 노후재산관리
	종교-종교시설		보험부분-개호보험, 연금형보험					
	교육-노인대학, 방송대학		자산관리부분-신탁, 부동산관리					
안전관련 서비스	긴급통신서비스- 가정안전, 긴급통신서비스	금융관련 분야	보험부분-개호보험, 연금형보험	여기분야	레저시설및상품	생활관련 분야	구분	의류생활용품 개호서비스 (노인대상입욕, 급식, 침구등)
	구체서비스-구체서비스		자산관리부분-신탁, 부동산관리					
	노인용지엄개발- 직업알선, 인제파견							
시노보람 서비스	노령용직업정보- 직업정보지, 회원체클럽	교육관련 서비스	교제서비스-결혼알선서비스					
	교제서비스-결혼알선서비스							

분야로 나누고 있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7개분야(주거관련시설분야, 케어서비스분야, 건강관련서비스분야, 스포츠·레저관련분야, 교육관련분야, 안전관련분야, 사는보람분야), 삼성경제연구소는 실버산업의 내용을 5개 분야(주거관련분야, 의료관련분야, 여가활동분야, 금융보험관련분야, 생활관련분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분야(주거시설분야, 유료양로시설분야, 유료재가서비스분야, 의료 및 복지용구분야, 금융보험분야, 여가분야)로 나누고 있다. 한편 일본 후생성은 7분야, 미국은 4분야로 실버산업을 분류하고 있다(표 1 참조).

따라서 본 연구는 실버산업의 분야를 한국 토지개발공사의 분류, 대한주택건설사업 협회의 분류, 삼성경제연구소의 분류 등에서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분류하여 6개의 분야로 작성하였다(표 2 참조).

3) 우리나라의 여가서비스의 현황과 전망

여가서비스 중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야는 관광, 노인스포츠 클럽, 노인 문화센터 운영, 노인 리조트 운영 분야 등이다. 여가서비스의 민간 진출은 비록 미미하지만 가장 활발한 분야는 관광분야와 교육분야이다. 관

광분야는 노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지순례나 건강캠프, 온천 경유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효도관광 프로그램, 계절에 따른 다양한 관광상품과 노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을 계획하는 외국여행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노인학교와 노인교실을 통한 교육활동이 있다. 1970년대에 노인의 교육욕구와 고독해소 등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설립한 노인학교는 주로 종교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000개소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교실은 노인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의 노인을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1972년 한국평생교육원을 필두로 시작하여 1998년에는 전국 444개소에 43713명의 노인들이 등록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1998). 이 분야의 실버시장 규모는 60세 이상 고령화 계층의 경우 2010년에 8800억 원에 달하는 큰 시장이 될 것이다(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90).

4) 외국의 여가서비스의 현황과 전망

(1) 일본

일본은 실버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 민간

<표 2> 실버산업의 유형 -2

분야	부문	내용
주거관련분야	주거시설부문 재가서비스부문	유료양로원, 3세대주택 급식서비스, 복지기기
의료관련분야	병원부문 제약부문 의료정보부문 인력파견부문	노인전문병원 노인성질환약품 병원관리, 의학정보 의료요원의 알선,
식품관련분야	식품부문	외식, 건강식품, 기호식품, 특수영양식
여가활동분야	스포츠레저부문 교육관련부문	등산회, 게이트볼장 등 노인대학, 노인회관 등
금융관련분야	연금부문 보험부문 자산관리부문	공적연금, 사적연금 개호보험, 연금형보험 신탁, 부동산관리
생활관련분야	의료부문 생활용품부문	일상복, 정장복, 환자복 가전제품, 일상용품

의 참여를 거부하지 않으며,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민간의 공급이 가능하다면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적극 도입하려고 있다(한국사회복지연구회, 1991). 일본의 실버산업의 발전을 보면 1985년부터 정부 후생성에 실버서비스 진흥지도실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으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실버서비스 진흥회를 발족시켜 동일업계의 기술, 자율적 규제 등의 발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1989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Gold Plan)이 책정되고 1990년에는 노인복지관계법정이 개정되었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3).

일본 후생성의 실버산업 분류(후생성, 1994)를 살펴보면, 1) 주거관련분야, 2) 개호서비스 관련분야, 3) 복지기기관련분야, 4) 금융관련분야, 5) 의료관련분야, 6) 레저관련분야, 7) 일상생활분야 등의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일본인들이 향후 역점을 두고 싶어하는 일은 레저와 여가생활이다. 따라서 노년기가 연장되어 80세에 이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 레저, 문화교양, 교제 등 보람관련 사업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주로 인기 및 유망사업은 여행업, 교양강좌, 전문학교, 게이트볼 사업, 출판사업, 재혼상담소 등이 있다.

여가활동 상위 10개 항목 중 1, 2위는 해외여행과 국내관광이다. 일본에서 성공한 관광회사의 경우를 보면 이 회사는 노인클럽연합회와 제휴하여 노인회클럽 여행에 진출하여 노인클럽여행 붐을 일으켰다. 또한 1981년 10월부터 JR철도가 발매 실시하는 장년부부를 위한 풀문패스(부부의 연령 합계가 88세 이상인 경우 유효기간 내 몇 회라도 특실열차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승차패스)는 1986년에는 14만매의 판매를 기록 할 정도로 성공한 상품으로 꼽힌다. 한편 고령자 스포츠로서 고안된 게이트볼은 최근 급속히 확산 보급되고 있으며, 여행과의 셋트상품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정기룡, 1996).

인재파견소개업은 은퇴한 고령층에 잘 맞는 사업이다. 1980년 중반에 인재 파견법이

시행된 후로 인재 파견업이 계속 성행 중이다. 대기업이 참여하여 중고령자의 고용확보에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할 전망이다.

기타 여가분야의 새로운 사업으로서 급식 서비스, 문화센터, 자서전 출판서비스, 애완동물 서비스, 가사대행서비스 등이 있다.

(2) 미국

미국은 서유럽과 달리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공공부문보다 민간이 상당부분의 서비스를 담당하여 실버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수요자층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공급하고 있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전문적인 노인주택 관리회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민간 노인주택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달하고 있는 실버산업은 1) 여가(recreation)산업, 2) 보건관리산업(health care business), 3) 주거관련사업(housing business), 4) 노인용품판매사업(sale of goods for the aged), 5) 서비스산업(service business)(김태현·이인수, 1996) 등이다.

여가서비스를 살펴보면, 고령화 계층의 관심분야 중에서 하나는 삶을 보람있게 살기 위한 레저와 교제활동 분야이다. 미국에서 노인을 위한 여행프로그램은 200종류를 넘어가고 있고, 호텔과 숙박업계는 고령자를 회원으로 하는 클럽을 조직하여 고정 고객 확보에 힘쓰고 있다. 국내의 일반 관광 여행 및 학습을 겸한 여행(Elder Hostel Program), 야외 스포츠, 스포츠 지도, 휴양지 휴양 등이 있다. 특히 국내의 여행은 노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여행 프로그램 중 학습과 문화유적답사 등을 겸한 것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최성재, 1995).

2. 노인여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노인여가의 개념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노인들은 무위무용의 상태일수록 고독, 무료함, 고립감 등을 느끼게

되고, 결국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전형상·이천희, 1994).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개 청소년기에 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고,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여가 생활에 죄의식을 느끼는 경향이 팽배하여 노인들은 과거 노동 중심의 인생관을 갖고 살아왔다. 또한 건강상태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여 고독감 속에서 노후를 보내기도 하고, 능력과 특별한 재능 부족으로 여전히 그 무료함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하루 24시간 전부가 노인에게는 여가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노인의 여가는 젊은 세대 여가와 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노령기를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가정에서도 뚜렷한 역할 없이 보내는 시기로 본다면, 경제적이고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난 자유시간이 노인들에게는 여가시간이 될 수 있고 여가시간 속의 활동은 노후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인의 여가는 Burgess(1950)가 말한 '역할 없는 역할로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젊은 세대처럼 재생산의 수단 또는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노인의 여가라 함은 일반적으로 노령기에서도 일정한 사회적, 가정적 역할에 있어서 그 역할을 추구하는 도중에 갖게 되는 여유 있는 시간을 의미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부과된 일정한 역할 없이 막연하게 긴 시간을 보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노인의 여가는 후자인 경우가 많다(김태현, 2001).

2) 노인여가의 특성과 욕구유형

노인들은 가정에서 부여된 역할이 있거나 외출을 하고 싶어도 갈 곳이나 용돈이 없어서 혹은 건강상의 문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 내에서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는 가부장적 권위와 역할의 상실,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자녀들과의 대화단절 등으로 생활 면에서의 흥미나 가족내에서의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여 여가시간을 가정의 테두리 밖에서 보내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은 가정보다는 개인본위의 행동이나 생활기능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전형상·이천희, 1994).

한편 여가의 특성을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김명배·최만준·노덕선, 1995) 여가는 인간이 처한 다양한 의무나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여가 참여 여부와 여가활동 형태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이다. 또한 여가는 자아가 진실되게 표현된다는 자기 표현성을 가지고 있고, 순수한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영위되는 가치 창조적 활동이며, 노동과 밀접한 상호작용의 관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여가는 생활양식성을 지니는데 이는 인간생활에 보편적 현상으로 정착되어 가면서 인간다운 생활의 출현과 더불어 지속되어 온 현상으로 삶의 중요한 영역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은 일과 일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경제활동의 종사층과 다르게 은퇴와 정년이라는 사회제도로 인해 그들에게 기대되는 사회활동과 역할들이 뚜렷이 정립되지 못한 채 길고 무료한 시간을 단순하게 시간 보내기로 사용하고 있다.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에는 노년기의 시간적 공백을 채우기 위한 순수한 취미·오락활동 또는 건강과 능력범위 내에서 사회나 국가를 위해 기여하는 사회봉사활동 등을 들 수 있다.

Kaplan(1960)에 의하면 노인의 여가활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욕구, 자신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가시간을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욕구, 정상적인 동반자 관계를 즐기려는 욕구, 개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기 표현과 성취감의 기회를 가지려는 욕구,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욕구, 적절한 정신적 자극을 가지려는 욕구, 적절한 주거조건과 가족관계를 가지려는 욕구, 정신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욕구는 노인들의 여가활동형태에 큰 영향을 주며, 노인 개인의 생활수준, 교육정도, 가치관, 성격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노인의 여가서비스 이용정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적 변인 중 연령 변인을 보면 Cutler(1979)는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참여도가 감소한다고 하였고, 김외숙(1991)의 연구에서는 가정지향적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사교활동이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연구와는 다르게 연령이 여가활동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인이 아니고, 사회적 요인·개인적 습관·건강상황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Neulinger, 1974)도 있다.

오준제(1984)의 연구결과에서는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이 가족중심적인 여가를 보내는 경향이 있으며 박유식(1985)과 최인영(1980), 한국갤럽조사 연구소(1984)의 연구에서는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실태에는 차이가 있고,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종류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보고하였다.

동거형태의 경우 가족이 복지추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집단이므로 Jonson(1978)은 노인들이 자식과 동거하며 갖게 되는 원만한 가족관계는 노인 복지감을 향상시켜 준다(이선미, 1992에서 재인용)고 하였고, 김수연(1987)의 연구에서는 다른 어느 집단보다 자식과 동거하여 얻는 만족감이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Parker(1976)는 건강상태가 노년기 여가활동을 폭넓게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노인의 건강상태가 나빠짐에 따라 노인의 역할은 독립적인 것에서 의존적인 것으로 전환되므로 건강은 노인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최혜경, 1984; 김종숙, 1987; Lee & Shehan, 1989). 또한 진영아(1995)의 연구에서는

60세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한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실(1995)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39.0%로 노인정에 가장 많이 참여했고 다음이 종교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노인정에 24.9% 다음이 라디오 청취로 나타났으며, 이선미(1992)는 노부부 단독세대에서 배우자를 상실하게 되면 가사내용이 크게 변화하게 되고, 부부생활 자체도 해체되어 많은 여가시간이 생기게 되므로 여가활동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직업이 여가선택행동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 문정옥(1977)은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여가활동에 적게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고, 신문영(1984)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계층이 '보고 즐기는 식'의 여가활동에 보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주거형태에 대해 Levy, Murphy J. F(1976)는 환경적 요소는 여가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민경애(1985)는 주거형태가 여가활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Settle(1978)의 연구에서는 100가지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박재간(1984)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여가활동이 활발하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한편 민경애(1985)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길었고, 김외숙(1991)과 홍성희(1991)의 두 연구 모두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개발적 활동의 참여도는 높게 나타났다.

Petterson(1973)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돈이 없어서"라고 하였다. 김외숙(1977), 백주현(1990)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정도가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Settle & Alreck(1979) 등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에 미치는 소득이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노인의 여가서비스 이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적 변인에 대해 살펴 보면, 우선 변화추구적 생활양식면에서 여가 서비스 이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여러 사회 환경적 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인의 생활양식은 기존의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여가활동 정도에 대한 영향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사회적 지원'은 Caplan(1974)의 연구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개인의 심리적 지원을 활성화시키고 정서적 부담을 덜도록 도와주며 화해, 물질, 도구, 지도 등을 제공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증진시켜 준다(이경희, 1991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이것은 정서적 적응, 생활의 만족, 정서적 육체적 건강 뿐 아니라 행동의 부적응, 환경적 스트레스의 완충작용을 한다. 특히 확대가족의 구성원이나 친구, 이웃, 사회협조 집단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 의한 도움은 가족에게 심리적 지원을 줌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지만 소유자원이 적은 노인집단에 있어서 가족이나 이웃의 지원이 보다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의 사회적 지원정도가 많을수록 여가활동의 전반적인 인지도나 경험여부도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첫째, 실버산업 중 여가서비스의 사용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실버산업 중 여가서비스의 이용정도는 개인적 변인과 가족환경적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실버산업 중 여가서비스의 이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설문지법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대상은 서울 및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미국이나 일본은 6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경우는 사실상 60세 이상을 사회구조상 노년층으로 볼 수 있다. 보편적인 퇴직연령이 55세이고,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60세이며, 노인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서는 노년층을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이계탁, 1994) 일치된 기준은 없지만, 주로 60세가 되면 교육직(교사·교수)을 제외하고는 직장에서 은퇴하여 사실상 노인들과 별 차이 없는 일상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이다(한국 노인문제연구소, 1993).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수정하여 본 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500부를 배포하여 수집된 자료 중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총 343부가 분석의 자료로 사용되어, 질문지의 회수율은 90.8%, 유효응답율은 68.6%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응답자의 자신과 가족의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문항과, 가족환경적 사항을 묻는 문항, 실버산업 중 여가관련분야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 개인적 변인

개인적 변인은 연령, 성별, 동거형태, 손자녀 돌봄의 여부, 건강상태, 결혼상태, 직업, 주거형태, 학력, 소득원, 월평균 수입을 포함하였다.

동거형태는 '결혼한 아들과 같이 살고 있다.', '결혼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미혼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 '부부만 따로 살고 있다.', '혼자 살고 있다.', 기타(친지나 친구 등)의 6가지로 측정하여 빈도수와 선행연구를 참고로 크게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와 '자녀와 살고 있지 않다.'로 나누었다.

손자녀 돌봄의 여부는 '규칙적으로 돌보고

있다.', '자주 돌보고 있다.', '가끔 돌보고 있다.', '돌보고 있지 않다.'의 4가지로 측정하여 빈도수를 참고로 크게 '손자녀를 돌보고 있다.'와 '손자녀를 전혀 돌보고 있지 않다.'로 재분류하였다. 건강상태는 '아주 건강하다.'부터 '병이나 피로감 등으로 인해 자리에 눕는 일이 많다.'의 5가지로 측정하여 빈도수와 선행연구를 참고로 '건강상태가 좋다.', '보통이다.', '건강상태가 나쁘다.' 세 가지로 나누었다. 결혼상태는 미혼, 기혼, 별거, 이혼, 사별, 기타의 6가지로 측정하여 크게 기혼과 기타(별거, 이혼, 사별 포함)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직업은 김영모(1980)의 분류를 근거로 하여 무직, 주부,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사무직, 전문·기술직, 관리직, 전문직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을 빈도수를 바탕으로 크게 무직 또는 주부, 판매·생산직, 관리·전문직으로 재분류하였다. 주거형태는 자택, 전세, 월세, 기타의 네 가지로 측정하여 크게 자택과 기타로 나누었다. 학력은 최종학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무학, 국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후, 빈도수를 참고로 하여 크게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나누었다. 소득원은 '귀하나 배우자가 번다.', '자녀들이 대준다.', 이자소득, 연금, 생계보조금, 기타의 6가지로 측정하여 빈도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귀하나 배우자가 번다.', '자녀들이 대준다.', 이자소득이나 집세 또는 연금으로 나누었다. 월평균 수입은 주관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나. 가족환경적 변인

변화추구적 생활양식, 가족의 사회적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변화추구적 생활양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의생활은 제일기획(1993)의 「시장과 소비자조사」를 토대로 '나는 구두나 장신구는 옷에 맞추어 착용하고 싶다.', '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옷을 입기가 싫어진다.', '눈에 띄는 옷이라도 내 마음에 들면 과감히 사는 편이다.', '옷이나 머리모양, 장신구를 자주 바꾼다.', '체중이나 몸매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 '몸치장이나

옷차림에 들이는 돈은 아깝지 않다.'라는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렇지 않다'에서 '그런 편이다'까지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고, 각 문항에 0-2점을 부여하였다.

식생활은 '나는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이용한다', '나는 외식을 자주 한다'라는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렇지 않다'에서 '그런 편이다'까지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고 각 문항에 0-2점을 부여하였다.

주생활은 '집은 재산이기보다는 편히 쉬는 공간이다', '나는 시골보다는 도시에 살고 싶다'라는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렇지 않다'에서 '그런 편이다'까지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고 각 문항에 0-2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변화추구적 생활양식은 각각의 문항을 합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을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고, 각 문항에 0-2점을 부여하고 각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20점까지 분포하며, 신뢰도 검증은 문항간의 내적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70이다.

노인들의 가족의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정희(1987), 박인숙(1992)의 설문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을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서 '그런 편이다'까지 0-2점을 부여하여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2점까지 분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사회적 지원도가 높은 편이며 신뢰도 검증은 문항간의 내적일치도에 의거한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60이다.

다. 여가서비스 관련 문항

실버산업 중 여가활동분야를 스포츠·레저 관련 분야와 교육관련 분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버산업의 분야를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 분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분류 그리고 삼성경제의 분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8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 분류(주거관련시설 및 서비스, 케어서비스, 건강관

련서비스, 스포츠·레저관련서비스, 교육관련 서비스, 안전관련서비스, 사는 보람서비스)을 수정하여 스포츠·레저관련서비스와 교육관련 서비스를 합하여 여가관련분야라 명명하였으며, 여가관련 분야의 문항은 다음 <표 3>와 같이 분류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Ver.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 일원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다.

노인의 실버산업 중 여가서비스의 이용 실태가 개인적 변인과 가족환경적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고, 사용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질문의 내적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화추구적 생활양식, 가족의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문항의 신뢰도는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단순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2. 연구문제 분석

1) 노인들의 여가서비스 이용현황

(1) 여가서비스의 이용실태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여행과 관련된 부문 중 노인들은 노인을 위한 여행대리점(14.9%)이나 노인전용여행회(14.9%)를 이용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지만 노인을 위한 여행프로그램(33.8%)은 약간 높은 이용율을 보였다. 스포츠와 관련된 부문 중 노인들은 골프장(7.3%), 테니스장(7.6%), 수영장(23.9%), 게이트볼장(8.7%), 에어로빅장(17.8%), 헬스장(9.3%)을 이용하는 경우는 적은편이나 비용이 필요 없는 산책로(67.6%)와 등산회(43.4%)의 이용비율은 높았다. 건강과 관련된 요양소(4.1%), 건강센터(19.2%)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용율에 있어서 다소 낮았다.

취미와 관련된 여가부문에서는 민속놀이교실(6.1%), 수예교실(4.1%), 사교댄스교(4.7%), 연극회(3.5%), 그림교실(2.6%), 요리강습(11.4%), 다도회(4.1%), 바둑교실(11.1%), 낚시회(10.5%), 야외공연장(13.7%)은 전체적으로

<표 3> 여가서비스 분류

구분	여가서비스	
스포츠·레저 관련 부문	여행	노인을 위한 여행대리점, 노인전용여행회, 노인을 위한 여행프로그램, 온천, 관광농원, 관광목장, 해외관광
	스포츠	골프장, 테니스장, 수영장, 산책로, 에어로빅, 등산회, 게이트볼장,
	건강 증진시설	휘트니스 클럽
	휴양	요양소, 건강센터
교육 관련 부문	취미	노래교실, 민속놀이교실, 수예교실, 사교댄스 교실, 연극회, 그림교실, 서예 교실, 요리강습, 다도회, 바둑교실, 낚시회
	오락	야외공연장
	종교시설	종교활동
	교육	노인대학, 노인회관, 문화강좌, 컴퓨터교실, 사회교육원, 방송대학, 각 대학 교육원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43)

개인적 변인			변수	집단	빈도(백분율)
변수	집단	빈도(백분율)	주거상태	자택	261(76.1)
				기타	82(23.9)
연령	60대	215(62.7)	학력	중졸이하	175(51.0)
	70대	102(29.7)		고졸	103(30.0)
	80대	26(7.6)		대졸이상	65(19.0)
성별	남	108(31.5)	소득원	본인이나 배우자	109(31.8)
	여	235(68.5)		자녀	137(39.9)
동거형태	아들·딸	130(37.9)		기타	77(28.2)
	미혼자녀	76(22.2)	월평균 수입	100만원미만	84(24.5)
	부부	94(27.4)		100-250만원	185(53.9)
	혼자	43(12.5)		300만원이상	74(21.6)
손자녀 돌봄여부	돌봄	200(53.8)	가족 환경적 변인		
	돌보지않음	143(41.7)	변화 추구적 생활양식	상(11-18)	67(19.5)
건강상태	좋음	124(36.2)		중(6-10)	156(45.5)
	보통	149(43.4)		하(0-5)	120(3.5)
	나쁨	70(20.4)	가족의 사회적 지원	상(7-12)	173(50.4)
결혼상태	배우자와동거	240(70.0)		하(0-6)	170(49.6)
	기타	103(30.0)			
직업	무직및주부	254(74.1)			
	판매·생산직	54(15.8)			
	관리·전문직	35(10.1)			

그 이용률이 적었다. 전체적으로는 낮은 비율 이기는 하나 노래교실(18.7%)과 서예교실(14.9%)은 취미관련 부문에서 이용률이 높았다. 종교활동은 56.9%로 매우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교육강좌와 관련된 부문은 컴퓨터교실(10.5%), 사회 교육원(5.8%), 방송대학(2.3%), 각 대학의 사회교육원(1.8%)에 비해 노인회관(25.1%), 문화 강좌(25.4%)의 이용률은 높았다.

종합하면 노인층은 취미관련 부문보다는 교육강좌와 관련된 부문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50%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산책로와 종교활동이다. 이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금전적 지출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실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기에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2) 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노인들의 대부분이 이런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대학 사회교육원(61.5%), 사회교육원(54.8%), 교육·강좌와 관련된 노인회관(49.8%)은 이용법을 알지 못해서 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고, 노인을 위한 여행프로그램(41.1%)과 스포츠분야 중 골프장(43.4%)은 비싸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특히 이용법을 몰라서 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여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제공하더라도 노인들이 손쉽게 접할 수 없었거나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노인들이 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50.4%)와 '이웃·친지·친구들의 권유로'(41.7%) 라고 대답한

<표 5> 여가서비스의 이용실태

	여가서비스	빈도(백분율%)
여행	노인을 위한 여행대리점	60 (17.5)
	노인전용 여행회	51 (14.9)
	노인을 위한 여행프로그램	116 (33.8)
스포츠	골프장	25 (7.3)
	테니스장	26 (7.6)
	수영장	82 (23.9)
	산책로	232 (67.6)
	게이트볼장	30 (8.7)
	에어로빅장	61 (17.8)
	등산회	149 (43.4)
	헬스장	32 (9.3)
센터이용	요양소	14 (4.1)
	건강센터	66 (19.2)
취미	노래교실	64 (18.7)
	민속놀이 교실	21 (6.1)
	수예교실	14 (4.1)
	사교댄스 교실	16 (4.7)
	연극회	12 (3.5)
	그림교실	9 (2.6)
	서예교실	51 (14.9)
	요리강습	39 (11.4)
	다도회	14 (4.1)
	바둑교실	38 (11.1)
	낚사회	36 (10.5)
	야외공연장	47 (13.7)
	종교	종교활동
교육·강좌	노인대학	94 (27.4)
	노인회관	86 (25.1)
	문화강좌	87 (25.4)
	컴퓨터교실	36 (10.5)
	사회교육원	20 (5.8)
	방송대학	8 (2.3)
	각 대학 사회교육원	6 (1.7)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시간이 남아서'(4.1%), '게시 판이나 공고문, 신문을 통해서'(2.9%), 그리고 '기타'의 이유로 (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참조>

즉 노인들은 주로 자신의 발전을 위해 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노년기가

<표 6> 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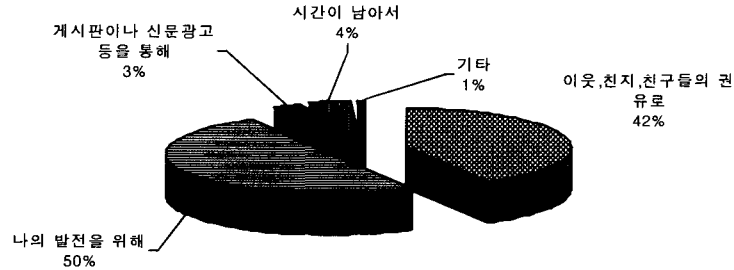
여가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이유	시간이 없어서	있는지 몰라서	비싸서	이용법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
여행	노인을 위한 여행대리점		17.2	7.9	23.8	4.4	46.9
	노인전용 여행회		12.8	7.6	26.5	6.1	46.9
	노인을 위한 여행프로그램		15.7	3.2	41.1	2.0	37.9
스포츠	골프장		6.7	0.9	43.4	6.1	42.3
	테니스장		15.3	2.3	10.5	6.1	66.2
	수영장		24.1	1.5	5.8	9.3	59.2
	산책로		26.5	0.6	1.2	2.0	67.3
	게이트볼장		9.9	1.5	2.3	23.0	63.3
	에어로빅장		8.1	1.4	3.2	5.5	81.6
	등산회		28.5	0.2	2.0	2.0	67.0
	헬스장		8.4	1.1	4.7	3.2	82.2
센터 이용	요양소		4.1	2.3	2.6	10.8	80.2
	건강센터		6.4	1.7	2.3	2.2	68.2
취미	노래교실		24.2	1.2	1.7	2.6	67.3
	민속놀이 교실		15.2	1.5	1.7	2.3	79.3
	수예교실		7.9	1.7	2.0	1.7	85.6
	사교댄스 교실		9.3	7.0	0.9	1.7	81.0
	연극회		9.3	5.2	0.6	0.9	84.0
	그림교실		8.5	2.3	0.9	2.0	83.4
	서예교실		22.1	2.6	0.6	0.9	83.4
	요리강습		13.9	2.6	0.6	1.2	82.2
	다도회		11.9	3.4	0.6	1.2	82.2
	바둑교실		11.0	2.9	0.9	1.5	83.7
	낙시회		16.0	2.0	0.9	2.3	78.7
	야외공연장		8.5	2.3	0.9	14.9	73.5
	종교	종교활동		3.5	1.2	0.6	0.3
노인대학			7.0	1.2	1.5	27.9	62.4
교육·강좌	노인회관		6.1	0.9	0.6	49.8	24.8
	문화강좌		31.5	1.7	0.9	1.5	64.4
	컴퓨터교실		13.4	1.7	0.9	0.9	79.0
	사회교육원		11.7	3.2	1.2	54.8	29.1
	방송대학		31.0	2.6	1.5	2.3	84.3
	각 대학 사회교육원		7.3	4.1	1.5	61.5	25.7

*음영부분은 각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임.

길어지면서 그 시간을 보다 풍요롭고 보람 있게 보내고자 하는 욕구와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자 하는 태도 그리고 자아를 찾고자 하는 성향이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그림 1> 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웃·친지·친구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다른 기타 매체를 통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 이것을 통해 노인들에게는 다른 정보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웃·친지·친구들의 말이 기타의 매체보다 훨씬 신뢰감을 주는 정보원임을 알 수 있다.

2) 개인적 변인 및 가족환경적 변인에 따른 여가서비스의 이용정도

개인적 변인 및 가족환경적 변인에 따라 노인의 여가서비스의 이용정도가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원분산분석(ANOVA)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노인의 여가서비스 이용정도는 연령, 동거형태, 건강상태, 결혼상태, 직업, 주거형태, 학력, 소득원, 월평균 수입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지만, 성별, 손자녀돌봄의 여부 등의 변인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연령에 따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60-70대 노인은 80대 노인에 비해 여가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에 따라 여가활동이 유의하게 차이가 난 결과와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다. 동거형태에 따른 여가활동정도는 부부끼리 동거하는 노인들이 미혼자녀나 기혼자녀와 같이 사는 노인들 보다 여가활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여가활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건강상태에 따른 여가활동정도는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평균 6.04)이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평균 4.27)보다 훨씬 활발하였다. 직업에 따른 여가활동정도는 관리직 및 전문직을 가진 노인(평균 6.26점)이 무직이나 주부집단 노인(평균 5.43점)과 판매직이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인(평균 4.41점)보다 훨씬 활발하였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이상(평균 6.46점), 고졸(평균 5.90점), 중졸이하(평균 4.62점) 순으로 여가활동 점수가 높게 나타나,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여가활동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원에 따라 여가활동은 집단간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자소득 등과 같은 기타소득이 있을 때(평균 6.22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그 다음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평균 5.68점)이고,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인(평균 4.49점)의 여가활동 수준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수입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여가활동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가활동은 경제상태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생활양식에 따른 여가서비스의 이용정도는 변화추구적 생활양식 문항의 총점과 빈도를 고려하여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변화추구적 생활양식면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도시 지향적이며, 보다 젊은층의 사고에 근접한 즉 변화추구적인 노인 집단이 그렇지 못한 노인 집단에 비해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

<표 7> 개인적 변인 및 가족환경적 변인에 따른 여가서비스 이용정도

(N=343)

변수	집단	여가서비스 이용정도		
		평균	D	F/ T값
연 령	60대	5.70	A	3.98*
	70대	5.02	A	
	80대 이상	3.85	B	
성 별	남	5.61		.85
	여	5.24		
동거형태	결혼한 아들,딸과 동거	5.05	B	3.53*
	미혼자녀와 동거	5.49	B	
	부부끼리 동거	6.15	A	
	혼자	4.14	C	
손자녀 돌봄여부	돌봄	5.37		.05
	돌보지않음	5.34		
건강상태	좋음	6.04	A	5.91**
	보통임	5.30	B	
	나쁨	4.27	C	
결혼상태	기혼	5.71		8.48**
	기타 (별거,이혼, 사별,기타)	4.52		
직 업	무직 및 주부	5.43	B	3.24*
	판매직 및 생산직	4.41	C	
	관리직 및 전문직	6.26	A	
주거형태	자택	5.75		4.31***
	기타 (월세, 전세)	4.09		
학 령	중졸이하	4.62	C	8.70***
	고졸	5.90	B	
	대졸이상	6.46	A	
소득원	본인 또는 배우자	5.68	B	7.89***
	자녀	4.49	C	
	기타 (이자소득,연금,생계보조금)	6.22	A	
수 입	상집단(300만원이상)	7.54	C	40.79***
	중집단(100-250만원)	5.54	B	
	하집단(2-90만원)	3.04	A	
가족의 사회적지원	상집단(7-12)	6.38		-5.69***
	하집단(0-6)	4.32		
변화추구적 생활양식	상집단(11-18)	6.82	A	17.14***
	중집단(6-10)	5.76	B	
	하집단(0-5)	4.01	C	

*p< .05, **p< .01, ***p< .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로 나타났다.

3) 여가서비스 이용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노인들의 여가서비스 이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이때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뒤 동거형태, 학력 변수를 제외하고, ANOVA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성별, 손자녀 돌봄 여부 변수를 제외하였다.

노인의 여가서비스 이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개인적 변인에서는 건강상태, 직업, 주거형태, 소득원, 월평균 수입 그리고 가족환경적 변인에서는 변화추구적 생활양식, 가족의 사회적 지원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개인적 변인에 대해서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직업이 판매직 및 생산직에 비해 무직 및 주부일 경우, 주거형태가 자택일수록, 주소득원이 자녀가 아니라 이자소득이나 연금, 생계보조금일 경우,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로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가 노년기 여가활동을 폭넓게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고, 좋은 건강상태와 이에 따른 기동력은 여가활동의 폭을 넓게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힌 Parker(1976)의 연구와 일치한다. 판매직이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인에 비해 무직 및 주부일 때 여가활동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리직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노인은 여가활동

<표 8> 여가서비스 이용정도에 대한 OLS분석

(N=343)

독립변인	여가서비스 이용정도	
	b	β
<u>개인적변인</u>		
연령	-2.5E-02	
건강상태	-.410	-.04
결혼상태(기타)	.575	-.11*
직업(판매직및생산직)		.07
무직 및 주부	1.746	.21**
관리직 및 전문직	.472	.12*
주거형태(월세및전세)	.830	.10*
소득원(기타)		
귀하나 배우자	-.566	-.07
자녀가 대증	-.474	-.13*
월평균 수입	3.5E-07	.18***
<u>가족환경적 변인</u>		
가족의 사회적지원	.183	.16**
변화추구적 생활양식	.174	.19***
F-value	11.80 ***	
R ²	.26	

* p< .05, **p< .01, ***p< .001

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여가활동에 적게 참여한다는 문정옥(197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주거형태에 있어서는 월세, 전세, 기타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이 보다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이 다른 거주상태에 있는 노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기보다는 선택적이고 부가적인 의미가 강한 여가활동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이 보다 관심도 많고 여가활동참여도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소득원이 이자소득이나 집세 또는 연금인 경우에 비해 자녀가 용돈을 주는 경우의 노인이 여가서비스 이용정도가 낮았다. 소득원이 자녀라는 것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을 많이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경우 생활비 및 용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리라 본다. 월평균 소득에 있어서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서비스 이용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가를 즐기는데 큰 난관이 되는 것은 경제적 사정이고, 보다 활발한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가활동은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교통비, 참가비, 준비비 등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경제적 여유로움을 지닌 노인이 보다 폭넓고 많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가족환경적 변인에서는 변화추구적 생활양식에서는 보다 개방적이고 도시 지향적이며, 젊은층의 사고에 근접한 노인이 그렇지 못한 노인에 비해 여가서비스 이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여가활동 정도가 높았다. 사회적 지원은 개인의 심리적 지원을 활성화시키고 정서적 부담을 덜도록 도와주며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증진시켜 주므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변화추구적 생활양식 중 의생활의 경우에는 자신의 몸매에 신경을 쓰고 옷이나 구두, 장신구, 머리모양을 자주 바꾸거나 거기에 들이는 비용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노인일수록, 식생활의 경우에는 외식을 자주 하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이용하는 노인일수록, 주생활의 경우에는 시골보다는 도시에 살고 싶어하거나 집을 재산이기보다는 편히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노인일수록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 고령화 추세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서 비롯된 실버층에 대한 관심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실버산업 중 여가서비스 이용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 노인 여가서비스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는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최종분석에는 343부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인들의 실버산업 중 여가서비스의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산책로였다. 전체적으로 여가서비스 이용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고, 이용하는 여가활동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빈곤사회에서 장년기를 보냈고, 여가활동과 여가수단에 대한 기회나 사회화를 받을 기회가 적었으며, 여가를 즐긴다는 것을 특권층의 독점물처럼 인식하고 있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관련 분야 중 노인대학, 노인회관, 문화강좌에 비해 방송대학과 각 대학 사회교육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8%와 6%로 적었다. 그러나 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자기발전을 위해서였는데, 이는 자아를 찾고자 하는 욕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은 길어진 노년기를 보다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성별 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였고 골프장, 노인을 위한 여행프로그램의 경우는 「비싸서」이며 노인회관, 사회교육원, 각 대학 사회교육원의 경우에는 「이용법을 몰라서」가 그 주된 이유였다. 노인에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 해서 누구나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즐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과 어떻게 여가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개발이 여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개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여가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청년기 또는 중년기부터 여가서비스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노년기를 맞이하였을 때, 보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또한 노인들에게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홍보나 광고가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용비를 보조해주거나 노인을 고려한 가격을 설정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실버산업 중 여가서비스의 이용실태는 성별, 손자녀 돌봄의 여부를 제외한 모든 개인적 변인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가족환경적 변인에서는 변화추구적 생활양식과 가족의 사회적 지원이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변화추구적 생활양식면에서 보면, 변화추구적이고, 생활의 풍요로움을 창조하려는 쪽으로 실버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환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원은 노인에게는 정서적 적응, 생활의 만족, 정서적·육체적 건강 뿐 아

니라 행동의 부적응, 환경적 스트레스의 완충 작용을 한다. 따라서 노인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 또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경제적 도움 뿐 아니라 정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의 적극적 활동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의 여가서비스 이용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은 개인적 변인 중 건강상태, 직업, 주거상태, 소득원, 월평균 수입이었으며, 가족환경적 변인에서는 변화추구적 생활양식, 가족의 사회적 지원이었다. 현재의 실버세대는 일과 자녀로부터 해방되어 소비, 여가, 문화 등에 전념하고, 새로운 라이프 디자인을 설계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고, 다양한 여가활동은 노인의 고독, 불안을 막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사고와 감정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소시켜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실버산업 중 여가서비스의 이용실태를 보면, 그 이용정도가 낮았고 그 활동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개인적 변인과 가족환경적 변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의 실버세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는데 적극적이며 그동안의 각종 경험을 새로운 생활 설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기에 정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의 여가서비스 이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가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지역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가 서비스를 위한 장소제공 및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창구를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는 사회교육을 통해서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계획·지도하고 노인들에게 여가에 대한 가치관의 재인식을 위한 계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누구에게나 여가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평준화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의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여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척도를 보면, 외국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부분이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므로 도구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60세 이상의 노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계층은 고령화 사회에 준비가 된 세대라기보다 이미 소외된 계층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향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있고, 구매력을 보유하게 될 현재의 40-50대의 예비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근주 외(1996). 실버산업이 몰려온다. 『뉴스메이커』, 172, 42-47.
- 2) 김희연(1994).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실버타운의 건설. 『기업경제』, 10, 97-105.
- 3) 박인숙(1992). 주거환경 서비스가 주거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 4) 권정원(1996). 노인소비자교육 요구분석: 노인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5) 김명배 · 최만준 · 노덕선(1995). 노인여가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 6) 김상현(1995). 급부상하는 실버마켓과 국내 은행의 대응방안. 대구경북경제리뷰 140, 115-123.
- 7) 김상현(1997). 노인소비자의 욕구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영남대학교.
- 8) 김애련(1997).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활동이 생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 9) 김명만(1992). 건강한 노후생활. 을유문화사.
- 10) 김영옥 · 임송은(1998). 노년기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대전보전논문집 19, 157-169.
- 11)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12) 김종규(1998). 노인소비자 특성에 기초한 실버타운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영남대 경영대 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3) 김태현(2001). 노년학. 교문사.
- 14) 김태현 · 이인수(1996). 실버산업의 실제. 도서출판 하우.
- 15) 김호익(1996). 실버산업의 현황과 그 전망. 아주대경영대학원연구보고서. pp. 151-161.
- 16) 김홍록(1994). 노인을 위한 여가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국민대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17) 노영섭(1994). 『건강백세와 실버산업』. 아카데미서적.
- 18) 대한무역진흥공사(1991). 일본의 실버산업.
- 19) 동아일보 2001. 5. 21.
- 20) 동아일보 2002. 2. 17.
- 21) 문현상(1997). 실버산업의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2월호, 67-71.
- 22) 보건복지부(1998). 『노인복지사업 지침』.
- 23) 소비자시대(1995). 11월호, 특집: 한국의 실버산업.
- 24) 신정화(1995). 노인층의 여가현상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7, 73-85.
- 25) 신한종합연구소(2000). 트렌드 21.
- 26) 이경희(1991).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 27) 이용학(1994). 고령화 추세와 실버산업의 전망. 『경은조사』, 31, 6-10.
- 28) 이창걸(1996). 21세기에 주목해야 할 실버산업. 『신기술』, 5, 18-34.
- 29) 전형상 · 이천희(1994). 노인여가와 사회교육으로서의 여가교육. 고려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논총 제 6집, 27-36.
- 30) 조석주 · 우미라(1996).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전망과 발전방안. 『지방행정 정보』, 4(38), 135-155.
- 31) 조영권(1995). 실버산업, 황혼의 꿈과 현실. 『주간매경』, 22-33.
- 32)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 33) 한국개발조사연구소(1990).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 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일보 1997. 12. 6.
- 35) 황진수(1997). 노인여가 문화정책의 활성화 방안. 노인복지정책연구 5, 53-89.
- 36) 황의록(1992). 노인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소비자학회 92년도 총회 및 학술대회.
- 37) 홍성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 38) Allen M. J. & Yen W. M(1979). "Introduction to measurement Theory". Monterey, CA: Brooks/Coles.
- 39) Donald U. Cowgill(1996). Aging around the World", Wadworth Publishing Co., p. 24.
- 40) Kelly J. R.(1990), " Leisure and aging : A Second Agenda", Loisir et Society and Leisure,13(1), 145-167.
- 41) Karen D. Dyke & Yem. L. Bengtson(1996). Caring more or less : individualistic and colleectivist systems of family elder-ca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8, 379-392.
- 42) McCormick S.(1991). "The graying of parks and recreation", Parks and Recreation, 26,(3) 60-64.
- 43) Mobily K. E., Lemke J. H. & Gisin G. J.(1991). "The idea of leisure repertoir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0(2), p. 208-223.
- 44) Wolinsky F. D. & Stump T. E. & Clark D. O.(1995). "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hysical activity and excercise among older adults", The Gribtikigust, 35(4), 451-462.